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뉴스레터 No. 49



KAWASAKI CITY
川崎市

편집·발행 : 시민·어린이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2014년 1월 15일 발행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2-0-0-0-0-0-0-0.html>
(간단한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2748.html>

「인터내셔널·페스티벌 in 가와사키」 와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 에 참가했습니다

7월 7일(일), 국제교류센터에서 「인터내셔널·페스티벌 in 가와사키」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일, 여러나라의 노래와 춤이 선보였고 세계 각국의 요리도 판매되어 다채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대표자회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만, 많은 참가자와 개최 장소의 고조된 분위기에 많이 놀랐습니다.

9월 29일(일)에는 사이와이시민관에서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는 사이와이구청이 주최하는 이벤트로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양쪽 이벤트 모두 각각의 좋은 볼거리가 있고, 평소의 회의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주로 패널을 이용하여 대표자회의의 PR을 했습니다. 대표자회의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외국인분들이나 대표자회의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는 일본인분들도 오셔서 아주 좋은 PR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퀴즈」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즐기면서 이문화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에는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인터내셔널·페스티벌 in 가와사키」 ◇



◆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 ◇

<2013년도 대표자회의 일정>

시간 : 오후 2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장소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토쿄도요코선 모토수미요시역에서 도보 약 10분)

Map : <http://www.kian.or.jp/accessmap.shtml>

제 4 회 제 1 일 1월 19일 (일)

제 4 회 제 2 일 2월 16일 (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습니다.

꼭 대표자회의를 보러 오세요.



<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3 년도의 오픈회의가 11 월 17 일, 나카하라시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픈회의는 평소에 대표자회의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대표자 이외의 참가자로 부터 의견을 들어서 대표자회의의 심의에 참고하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약 120 명이 참가했고, 14 시 부터 17 시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전반은 요코하마시립대학의 츠보야 미오코 준교수님의 「외국인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관계」라는 테마로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본 외국인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 외국국적의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단지의 자치회의 시도, 외국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활동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하면서 그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참가자의 앙케트로 부터 「대학 강의처럼 신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의 입장이지만,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주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문화의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회의 후반에서는, 소노다 이즈미 베아트리스 복지교육부회장과 차트 데이빗 사회생활부회장이 대표자회의의 심의내용을 소개하고 많은 참가자로 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표자회의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의논되어 온 테마 중에서 구청 등의 민원창구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대응과 정보전달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참가자로 부터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멘테이트로서 게이오기쥬쿠대학의 가시와자키 치카코 교수님과 고마자와대학의 나카노유지 교수님도 참가하셔서 귀중한 어드바이스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또, 회의의 참가자분들이 상호간의 교류를 깊이 다지는것도 이 회의목적의 하나입니다. 이번년도는 회의종료 후, 교류파티에도 많은 일본인과 외국인시민분들이 참가하여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의 회의였습니다.

■ 사회자의 소감



저는 작년에 이어 두번 째 사회였습니다. 기조강연의 테마인 「외국인커뮤니티」강연은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많은 참가자로 부터 의견과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표자회의에서 서로 논의한 화제와 목적을 참가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 이번 오픈회의는 아주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프켄 브랜드)

이번 오픈회의의 사회를 맡은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기조강연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가와사키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픈회의는 진행도 순조로웠고, 참가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아주 활발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게오파사드 라츠아미찬)

◇ 회의보고

■ 복지교육부회

복지교육부회에서는 모든 테마의 심의가 끝나고 앞으로는 제언을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멤버들과 마무리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의 회의중에서, 제언의 하나인 「가정교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언에서는 일본에서 안심하고 가정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서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합니다.

남은 회의에서는 각각의 공통된 테마로서 제언 후보인 정보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심의를 통해, 될 수 있는한, 외국인 입장에서 살기 좋은 지역과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사회부 부회장 소노다 이주미 베아트리스)

■ 사회생활부회

사회생활부회에서는 제9기 제언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심의해 온 테마들을 3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전달입니다. 정보전달에 대해서는 중요한 테마로서 전체회의에서도 심의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민원창구의 대응과 상담이라는 논점이 구체적인 테마로 나와서 제언의 후보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출입국관리의 초점으로 되어 있는 부모를 일본으로 불러 들이는 것입니다. 단, 이 문제는 시의 관할이 아니므로, 제언에서는 시가 일본정부에 힘을 쓰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취업지원으로 외국인시민이 곤란해 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로서 심의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제언을 작성하기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가능한 한 유익한 제언을 정하도록 멤버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사회생활부회 부회장 차트 데이빗)

<방재훈련에 참가했습니다>

8월 31일(토), 가와사키시 종합방재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9월 1일이 「방재의 날」로서 이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가와사키시도 매년 훈련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토도로키녹지에서 훈련이 이루어져 많은 지역시민과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지진으로 가옥이 무너진 경우,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지 등을 배웠고 화재진압을 위하여 바케츠리레를 하는 등, 참가자 전원이 진지하게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유비무환」이란 속담이 있듯이, 평소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방재훈련에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 민숙)



재해·방재에 관한 정보는 가와사키시 홈페이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소나에루. 가와사키」・・・방재대책관련 총정보.

<http://www.city.kawasaki.jp/160/page/0000015861.html>

- 「방재지도」・・・긴급 시 피난소를 알 수 있는지도.

<http://www.city.kawasaki.jp/kurashi/category/15-3-13-7-0-0-0-0-0-0.html>

*상기, 다국어자료 있습니다.



세계의 설날 (새해의 축하)



세계에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 따라, 설날(신년)의 축하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나라와 지역들의 새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설날을 구정 또는 「춘절」이라고 부릅니다.(2014 년의 춘절은 1 월 31 일) 그리고, 중국에서는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예년, 새해는 1 월하순 부터 2 월중순이 됩니다. 설날 그믐날은 「조세키」라고 해서 맛있는「넌야향」을먹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만두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밤새도록 불꽃놀이와 폭죽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만, 홍콩에서도 중국본토와 같이 구정으로 축하를 합니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많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새해가 4 번 있습니다. 단, 싱가포르 70%가 중국계 사람이므로 역시 구정을 한층 더 성대하게 축하합니다.

한국은 양력과 음력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일가단란 보다도 선조의 혼령에 제사를 지내고 윗어른에 대한 공경이 주된 목적인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새해의 12 개월간의 행복을 기리며 교회의 종소리에 맞춰서 12 알의 포도를 한 개씩 한 개씩 먹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는 따뜻한 코코아와 추로스를 먹기 위해 외출 하는 것으로서 하루를 보냅니다.

브라질에서는 설날 그믐날의 저녁이 되면 모두가 새로 준비한 흰색옷을 입습니다. 흰색옷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러시아의 새해는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정교의 달력(유리우스달력)을 따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12 월 25 일이 아니라 1 월 7 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판 산타클로스는 「제트 마로스」란 이름으로 손녀 「스네그 라치카」와 함께 새해 1 월 1 일에 선물을 주러 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요르카」란 이름으로, 1 월 14 일경 까지 장식합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설날을 축하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새해를 기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공통된 바램이군요.

(양 이/오이테 오리에타/야나기사와 안나)

<문의> 가와사키시 시민 · 어린이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우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와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